

부산교통공사 '나눔 DNA'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 눈길



1 부산교통공사 본사 전경 2 건강기부 계단 3 김장으로 이웃사랑 나누요

부산교통공사는 매일 9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산 도시철도 4개 노선을 운영 중인 명실상부한 부산의 대표 공공기관이다. 4개 노선에는 114개 역이 있고, 총 길이가 115.2km에 달한다. 공사는 도시철도를 운영만 하는 국내 다른 기관과는 달리 국내 유일하게 직접 건설까지 맡고 있다.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공사의 '나눔 DNA'는 지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에서 비롯됐다. 나눔 DNA는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진가를 드러냈다.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수급 대란이 일어났을 때 사내에서 마스크 양보 캠페인인 '코로나19 극복! 사랑의 마스크 나눔 운동'을 벌였다. 임직원은 마스크가 시급한 이웃을 돕자며 십시일반 자신의 마스크

를 내놓았다.

공사는 이렇게 모은 마스크 3천441장을 근무 중 감염에 취약한 콜센터 노동자와 부산도시철도 청소노동자 1천38명에게 지급했다.

공사는 지난해 말 부산 취약계층 학생 2천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고자 장학금 10억 원을 쾌척했다. 이 돈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633개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 다니는 조손·한부모 가정 학생을 지원했다. 장학금은 부산교통공사 전 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모은 것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일회성 기부를 넘어 생활 속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공사는 지난 9월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에 건강기부 계단을 설치했다.

건강기부 계단은 시민 1명이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10원씩 기금이 적립되는 시민 참여형 사회공헌 차원에서 도입했다. 적립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저소득층의 아픈 어린이를 위해 쓰인다.

이미 공사는 2016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을 시작으로, 2017년 1호선 남포역, 2019년 2호선 사상역, 2020년 3호선 사직역 등 모두 4곳에서 건강기부 계단을 운영 중이다. 누적 기부액은 1억6천만 원에 달한다.

공사 관계자는 “부산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의 사랑과 믿음에 적극적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소명 의식이 우리 임직원의 '나눔 DNA'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공사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믿음을 되새기며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



3

더 안전한 부산의 발이 되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에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동차 일1회·역사 월2회 방역, 역 시설물 일6회 소독